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

－ 변공(變供)의례의 형성과 수용－

이 성 운**

I. 緒言: 하나에서 여럿으로 II. 변공의례의 형성 III. 변공의례의 수용
IV. 변공의례의 변형과 특성 V. 結語: 여럿이 하나로

요약문 [주제어: 공양, 施食, 變供, 眞言勸供, 四陀羅尼, 현교, 밀교]

불교의 공양의식에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공양이나 아귀 등에게 베푸는 시식(施食)과 같은 범공양과 현전삼보의 스님들께 올리는 반승[飯僧/齋供]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공양의식 가운데, 유한한 공양물로 무한한 피공양자에게 法供養할 때 유한한 공양물을 불보살의 가지력에 의지하여 무한한 공양물로 전환하는 의식의 궤범인 ‘變供儀軌(불보살이 준 진언을 염송하여 공양물에 불보살의 위신력을 가지하면 공양물이 양적·질적으로 전환되어 피공양자에게 공양하는 의식의 의례)’의 형성과 그 변공의례가 한국불교의 공양의식에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현재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한 그릇의 공양으로 한량없는 공양물로 전환하는 이 변공의례는, 현교와 밀교가 조화된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신비롭게 보이는 곳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비불교적(아니면 촌스럽거나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일체의 아귀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이 변공의례는 불교의 자비사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현교계 경전과 밀교계 경전에 變供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II장), 이 변공법이 한국불교의 공양의식의 궤범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단위형과 통합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III장),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한국불교 공양의식에 변형되어 정착된 의례인-‘사다라니(진언권공)’의 특성(IV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을 통해 변공의례가 한국 불교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한국불교 修行者들은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또 현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변공의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범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 緒言: 하나에서 여럿으로

變供은 하나의 공양물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공의례는 의례 안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지칭하고자 한다. 공양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한량없지만 공양물은 한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장치가 요구된다. 『유마경』에는 신통력이 변공의 장치로 쓰이고 있고,¹⁾ 화엄경전과 예참의례에는 마음으로 변공과 권공을 관상하는 계송을 시설하고 있다.²⁾ 이에 비해 밀교계경전과 의례는 신통력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다라니를 염송하여 부처님의 위력에 의지해 하나의 공양물을 한량없는 공양물로 변하게 하는 변식진언 등 다양한 다라니가 시설되어 있다. 초기에는 ‘無量威德自在光明殊勝妙力’ 하나로 변식과 업화청량이 성취되고 있지만³⁾ 이후에는 여러 개의 진언이 변공에 사용되고, 업의

1) 유마힐이 신통력으로 화신보살을 중향국 향적 부처님에게서 한 그릇의 공양을 얻어와 여러 대중을 배부르게 하고 있다. 『維摩詰所說經』(T14) p.552.

2) 『大方廣佛華嚴經』(T10) p.271c; 智顓, 『法華三昧懺儀』(T46) p.950b, “次當運心想。此香華於念念中，遍至十方一切佛土。作種種衆寶，莊嚴諸臺樓觀，上妙諸色作種種伎樂，上妙音聲歌頌讚歎，悉皆充滿法界，以爲佛事供養十方三世諸佛一切三寶，願三寶攝受，亦熏一切衆生，發菩提心，於一一佛前，悉見己身，如此供養等無有異。又願六道四生，悉入我供養法界海中，了知如是供養，悉從心生無有自性，心不取著。”

불길에 휩싸여 있는 아귀 등을 청량하게 하는 데는 4여래, 7여래 등의 청명의례가 추가로 등장하였다.

이 글은 변공 개념과 의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한국불교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이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불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양의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현행 진언변공 의식을 재검점하며, 변공의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⁴⁾

먼저 변공 개념이 정초되고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공양과 시식 등의 의례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어 한국 불교에 수용된 변공의례를 상증하단에 따른 各位形 의례와 統合形 의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변공 개념이 등장하는 염구경류와 이를 수용하고 있는 수록재 등을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⁵⁾와 『석문의범』과 『통일법요집』 등 현행 유통 의례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변공의례’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편찬한 『통일법요집』(2003)에 실린 ‘진언권공’을 지칭한다.⁶⁾ ‘진언권공’이라는 표현

3)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T21) p.466b.

4) 그동안 한국불교의 의례에 관한 연구는 홍윤식(1968년 이래) 등에 의해 의례의 특성과 구조가 연구되었고; 서윤길(1977년 이래) 등 제 연구자에 의해 각종 범회 실행의 사적 고찰; 한만영(1967), 김법현(1997) 등의 의해 영산재 범패 등 작법이 주로 연구되었다. 이는 주로 의례의 외적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각(1996)에 의해 송주 의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수경의 성립과 구조 등이 연구되었고; 송현주(1999)에 의해 현행 예불의 성립과 구조 등이 고찰되었으며; 정각(2002)에 의해 『불교 제례의 의미와 행법』(『한국불교학』제31집, 한국불교학회, 2002)이 연구되었고; 이태현(2003)에 의해 자운율사의 정도에참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한국불교 주된 의례라고 할 수 있는 공양의례 가운데 진언권공은 표기와 같은 국어사적 연구 외에 그 구조와 성립 변형 수용 등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불의 변용>에 대해 ‘개인이 회편했는지 종파의 폐합의 산물인지 모두가 모를 뿐’(월운, 『일용의식수문기』, 중앙승가대학출판국, 1991, p.14.)이라는 지적처럼 ‘변공’ 또한 그 의미와 변용의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작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박세민 편(1993),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에는 74편의 한국불교의례자료가 실려 있다.

6) 이 책 편목 배치 상 ‘사다라니(진언권공)’과 ‘예참①’의 사이에 편제된 ‘가지청문,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묘력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혜진언’을 ‘진언권

은 15세기 말에 간행된 『진언권공』(1496)⁷⁾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진언으로 공양을 권한다’는 의미의 ‘진언권공’은 변공 개념의 ‘사다라니(진언권공)’⁸⁾로 이해되고 수용된 채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 공양의식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진언권공’의 자의에서 보이듯이 이는 하나의 공양을 한없이 많은 공양으로 변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진언으로 공양을 권하는 개념으로, ‘변공’ 개념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는 변공 기능을 수행하는 ‘4다라니’⁹⁾를 ‘진언권공’이라 하여 권공 의례로 이해하고 수용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변공의례에 이해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변공의례의 형성

변공 개념과 의례는 밀교계통 염구경류의 아귀 구제와 대승경전의 다불 개념으로 인해 한량없이 등장하는 삼보께 공양을 올리게 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염구경류 경계에는 변공, 보시, 구제의 개념이

공’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 이 의례는 현행 ‘진언권공’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정법계진언, 진공진언,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 보공양진언, 향공양 등 육법공양, 경례삼보, 퇴공진언’으로 완전한 공양의례이다.
- 8) 『통일법요집』(2003)에는 ‘사다라니(진언권공)’라 하여 ‘진언권공’보다 ‘사다라니’를 우선하고 ‘진언권공’을 괄호로 처리하고 있지만 『석문의법』(1935) 이래 여타 의례에서는 단순히 네 개의 다라니라는 의미의 ‘사다라니’를 제목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 의미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진언권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9) ‘변공기능을 수행하는 사다라니’라는 표현을 잘 보여주는 현행 의례로는 『수륙무차평등제의』의 ‘加持變供편’을 말할 수 있다. ‘절이 향등경경~부사증명’ 가지의 표백을 한 후 차 ‘사다라니 여상’ 『석문의법(상)』(1935) p.253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석문의법 수륙제문의 선행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HR1) 1573, p.634에는 ‘정법계진언,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현향진언, 현등진언, 현화진언, 현과진언, 현수진언, 현병진언, 현식진언, 운심공양진언’까지를 변공진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결코 이 표현이 무의미한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염구’(또는 면연)아귀와 아난의 일화를 보자.

어느 날 아난이 홀로 조용한 곳에서 所受法을 염하고 있었다. 밤 3更이 지났을 때 매우 마르고 누추한 ‘焰口’라는 아귀가 “삼일 뒤 너는 명이 다하고 아귀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아난이 “만일 내가 죽어 아귀로 태어나는 것을 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아귀에게 묻는다. “백 천 나유타 향하사수 아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아귀들을 위해 삼보께 공양 올리면 면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아귀에게 듣는다. 하지만 아난에게는 향하사수의 아귀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다. 아난의 고뇌는 붓다에 의해 해소된다. 붓다는 전세 관세음보살 처소와 세간자재위덕여래 처소에서 받은 ‘無量威德自在光明殊勝妙力’ 다라니와 4여래의 명호를 일러준다. 이 다라니 염송으로 한량 없는 공양을 만들어 아귀에게 음식을 베풀고 4여래의 명호를 들려주어 아귀를 벗어나게 하도록 한다.¹⁰⁾ 이것이 시식의례 성립의 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다라니는 음식을 한량없이 변하게 하여 베풀게 되므로 檀바라밀 가운데서 재보시가 되고, 여래의 명호를 칭명하여 아귀로 하여금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외시가 되며,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법문을 들려주는 것은 법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이를 시식에서는 三檀布施(財施, 無畏施, 法施)라고 하는데, 이 삼단보시를 잘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원만히 닦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¹¹⁾

變供을 단초를 볼 수 있는 경전으로는 불공 역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1권)과 실차난타 역 『불설구면연아귀다라니신주경』(1권)를 비롯하여 불공 역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계의경』(1권) 등이 있는데, 여

10)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21) p.464c.

11) 『增修禪教施食儀文』(HR) p.363, “諸法無非法界, 一多無碍, 理事圓明. 妙具三檀, 圓修六度. 全在行人, 一心清淨, 種種功德, 隨念現前, 三檀者, 無畏施, 財施·法施.”

기에서 변공의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계에 제시된 변공하는 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밀교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정장』21권 소재 염구경류 의례와 현교계 경전에 나타나는 변공 개념과 성립의 단초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1. 염구경류 경계

1) 「불설구면연아귀다라니신주경」¹²⁾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일체덕광무량위력’ 7편으로 음식에 가지를 하여 문 안에서 팔을 펴 깨끗한 땅으로 일곱 번 사방으로 튕겨 베푼다. 아귀들이 두루 배불리 먹고 하늘에 나게 된다. 그러나 바라문과 仙人에게 베풀고자 할 때도 7편을 하라고 하고 있는 데 비해, 일체 삼보에 공양하고자 할 때는 다라니 21편을 하여 공양하도록 하고 있다. 아귀, 바라문선과 삼보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례에는 칭양성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¹³⁾

2)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¹⁴⁾

장수하고 복덕을 늘리고 속히 보시바라미를 성취하려면 매일 아침이나 일체 장애가 없을 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고 면과 떡을 넣고, 오른손으로 그릇(을 잡고) ‘무량위덕자재광명수승묘력’ 7편을 외워 가지한 후 다보여래, 묘색신여래, 광박신여래, 이포외여래의 4여래 명호

12)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T21) p.466a-b. 대정신수대장경은 불공 역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을 선편하였지만 본문 내용이나 의례구조로 볼 때 실차난타본이 먼저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13)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呪經』(T21) p.466a.

14)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21) pp.464c-465b.

를 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바라문선에게 베풀고자 할 때는 이 밀언 14편을, 불법승의 삼보에 공양하고자 할 때는 밀언 21편을 가지하여 삼보에 공양하도록 하고 있다. 아귀에게는 공양의 변공뿐만 아니라 아귀의 외적 내적 전환의식을 곧바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3) 「시제아귀음식급수법병수인」¹⁵⁾

이 의례에는 아귀를 소청하고 소청한 아귀의 상태를 전환해주는, 목구멍을 열어주는 開咽喉 수인과 송주 이후에 변공을 하고 있다. ‘무량위덕자재광명승묘지력가지음식다라니’ 7편으로 가지하여 일체 아귀가 칠칠 곡(49斛)의 음식을 먹고 생천하거나 정토에 태어나게 한다. 이후에 ‘감로법미진언: 시감로진언’ 7편을 하여 음식과 물이 한량없는 우유와 감로로 변해져서 일체 아귀의 인후(목구멍)가 열려 널리 많이 평등하게 음식을 먹게 한다. 이어서 ‘비로자나 일자 심수륜관진언’인 ‘밤’자를 관상하는데 오른손 심중의 밤자가 마치 우유빛과 같은데 8공덕해로 변해져서 일체의 감로제호가 유출된다. 밤자 7편을 하면 우유 등이 밤자에서 한량없이 나와 일체 아귀들이 다 배불러지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이어서 ‘보시일체아귀인진언’이라고 하는 현재의 유해진언 ‘나모 삼만다 못다남 밤’을 7편을 하여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깨끗한 땅이나 물가 나무 아래 쏜는다. 그리고는 5여래 명호를 칭송하고 있다. 현재의 수륜관진언과 유해진언의 공능이 잘 소개돼 있다.

4) 「불설감로경다라니주」¹⁶⁾

“나모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나타 음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15) 『施諸餓鬼飲及水法并手印』(T21) pp.466c-467c. 불공이 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706년 일본에서 간행된 자료이고, 국내 수록제 등의 의례와 차제가 일치하지만 당시에 성립된 의례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16) 『佛說甘露經陀羅尼呪』(T21) p.468b.

사하”의 현행 시감로수진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물 한 움큼을 쥐고 그 곳에呪하여 공중으로 흘린다. 그 물 한 방울이 십 곡의 감로로 변해진다. 일체아귀가 그것을 마실지라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계의경」¹⁷⁾

‘무량위덕자재광명여래다라니법’ 7편을 잘 가지하면 한 그릇의 음식이 종종의 감로음식으로 변해져서 백 천 구지 나유타 향하사수의 일체아귀와 바라문선과 이류귀신을 충분하고 족하게 할 수 있고, 이 뛰어난 음식으로 배부르게 된다. 또한 이 음식과 물(감로)의 양은 법계와 같아 다함이 없으며, 성과를 얻어 괴로운 몸을 벗어난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의케이므로 지옥문을 열고, 아귀를 부르고, 죄를 없애고, 참회를 하고, 시감로수진언을 외워 일체의 귀신들의 업화를 청량하게 한다. 이어 목구멍을 열고, 7여래(보승, 이포외, 광박신, 묘색신, 다보, 아미타, 세간광대위덕자재광명여래)의 명호를 칭양하여 모든 불자들의 외적 내적 변화와 공덕을 충족하게 한 후 삼귀계를 주어 보리심을 발하고 삼매야계를 받게 한 다음 변공을 진행하고 있다.

무량위덕자재광명여래다라니 ‘옴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데밤 바라바라 삼바라 삼바라 흠’을 ‘시식진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의 변식진언과 비교하면 수륜관진언의 ‘밤’자와 감로수진언에 등장하는 ‘바라’가 삽입되어 있다. ‘나모 삼만다 못다남 밤’(현재의 유해진언)을 가지하여 감로가 유출돼 (바다 같이 많아져) 일체유정에게 보급하여 충족시켜 무생인을 얻는 것으로 관상하라고 하고 있다. 이어서 현재와 같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의 보공양진언을 송한다. 지금까지 배푼 공양은 고해에

17) 『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T21) pp.468c-472b.

빠져 해탈할 수 없는 그간의 공양과 달리, 과거세 삼보에 공양한 선근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났으니 오로지 성불을 서원하게 되었다고 일러 주고, 음식을 베푼 공덕을 법계유정과 회향하고, 소칭한 이들을 봉송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6) 「유가집요염구시식기교아난다연유」¹⁸⁾

‘무량위덕자재광명여래다라니법’ 7편으로 한 그릇의 음식을 한량없는 음식으로 변하게 하는 것으로, 공양하는 법은 앞의 의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행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재산과 보배를 회사하는 이들을 칭찬하고 스승에게 계단을 열도록 세 번 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떠나 한결같이 평등하게 항상 보시를 행하되 후회하지 않으며, 좋은 벗을 가까이하고 용맹 정진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수행처를 고르고 장엄하는 법을 개략적으로 설하여 변공과 시식이 제도중생과 바라밀의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다.

7) 「유가집요염구시식의」¹⁹⁾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례의경」보다 정교한 의례로 삼귀의와 예참을 시작으로 운심공양 삼보시식 등 후대 시식의례의 전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진언 구절은 차이가 있지만 운심공양이 삼보시식을 위한 변공임을 보여준다. 三寶施食 이후 관음선정에 든 후 파지옥 등을 하고 난 다음 召請한 아귀들을 위해 7여래 명호를 칭양한다. 이어 귀의삼보(소칭

18) 『瑜伽集要焰口施食起教阿難陀緣由』(T21) pp.472b-473c.

19) 『瑜伽集要焰口施食儀』(T21) pp.473c-484a. 현재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예불대참회문: 108참회문’은 이 의례에 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참회문은 중국불교의 저녁과송 예참발원문이 국내에 도입되어 108예배하는 참회문으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아귀들에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일종의 수계의식) 이후에 무량 위덕자재광명여래 印과 진언, 유해진언, 시귀진언, 보공양진언 등이 봉행되고, 마지막 봉송이 진행된다. 삼보시식에는 운심공양진언이, 아귀들에게는 변식진언과 유해진언이 쓰이고 있다. 이 의례는 진언, 수인[圖], 觀想의 밀교 삼밀가지 의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정존승다라니, 축원, 삼귀의축원, 금강살타 백자주, 보결, 삼귀의찬 등을 볼 수 있다.

8) 「불설시아귀감로미대다라니경」²⁰⁾

아귀에게 음식을 베푸는 다라니 경계에는 아난이 등장하는데 이 경에는 월애보살이 등장한다. 그는 소청하고 목구멍을 열리게 한 다음에 변공의례를 진행한다. 행자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움큼을 떠 동방을 향해 시수진언(시감로장다라니신주) ‘나모 소로바예 다가다타야 다찰타 소로소로 바라소로 사바하’ 7편을 염송 가지하여 동쪽을 향해 공중으로 뿌린다. 그 물은 다라니의 힘으로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 감로미음으로 변해져 제 귀신들이 배불리 먹고 한량없이 환희한다. 이어서 ‘나모 사바 다타가다 나바게데 삼마라 삼마라’의 시감로식다라니주도 설해지고 있다. 이 진언은 현행 변식진언과 음운이 유사하다.

2. 현교계 경전과 懺儀

1) 현교계 경전

공양물과 공양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변공이 요청된다. 불 재세시나 초기불교의 모습에서 공양을 위한 변공 개념은 등장하기 어렵지만

20) 『佛說施餓鬼甘露味大陀羅尼經』(T21) pp.484b-488b.

아함경 곳곳에서 부처님께 재가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유행경』의 재가 신도들의 공양 장면은 공양하는 자세와 방법들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 짐차로 설법하여 이롭게 하신다. 설법을 듣고 신도들은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받들 것을 서원한다. 그리고 공양을 하고자 청한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허락하신다. 신도들은 여래를 위하여 강당을 지어 게실 곳을 마련하고 물 뿌려 소제하고 향을 살우고 자리를 깔고 공양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부처님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성자여, 때를 알으소서.’ 하고 아뢰며 부처님은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들고 대중들과 함께 강당으로 나아가신다. 거기서 손발을 씻으시고 그 복판에 앉으신다. 그때 비구들은 왼쪽에 앉고 청신사들은 오른쪽에 앉았다.²¹⁾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이가 부처님과 그 제자들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도록 공양물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리므로 변공 개념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변공 개념은 공양 받을 이들이 한량없을 때 필요한 것이므로 多佛, 諸天神 등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마힐소설경』 부사의품과 향적불품은 변공 개념의 성립과 확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리불 존자가 유마힐 거사의 방이 비었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많은 대중이 어디에 앉지.’ 사리불의 생각을 알아차린 유마힐 거사는 대중이 앉을 길상과 자리를 수미등왕 부처님의 처소에 빌려와 대중을 앉게 한다. 그리고 가지가지 부사의한 도리를 나타내어 상근의 사람을 교화한다.²²⁾

21) 『佛說長阿含經』(T1) 11ab, “世尊漸爲說法, 示教利喜, 諸清信士聞佛說法, 卽白佛言: ‘我欲歸依佛·法·聖衆, 唯願世尊哀愍, 聽許爲優婆塞. 自今已後, 不殺·不盜·不淫·不欺·不飲酒, 奉戒不忘. 明欲設供. 唯願世尊與諸大衆, 垂愍屈顧.’ 爾時, 世尊默然許可. 諸清信士見佛默然. 卽從座起, 遶佛三匝, 作禮而歸. 尋爲如來起大堂舍. 平治處所, 掃灑燒香, 嚴敷寶座, 供設旣辦. 往白世尊, ‘所設已具, 唯聖知時.’ 於是, 世尊卽從座起, 著衣持鉢, 與大衆俱詣彼講堂, 澡手洗足, 處中而坐. 時, 諸比丘在左面坐, 諸清信士在右面坐.”

22) 『維摩詰所說經』(T14) p.546a-b.

공양 때가 되자 사리불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대중이 먹을 밥을 어디서 지어 올 것인가.’ 유마힐은 위신력으로 화신보살을 중향세계 향적 불계로 보내 남은 밥을 얻어와 불사를 짓는다. 그리고 여래의 감로반이며 큰 자비로 혼습한 것으로 좁은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성문들이 다시 ‘밥은 한 그릇인데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자 화신보살들이 여래의 무량한 복덕과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계·정·혜·해탈·해탈지건의 공덕이 구족하신 이가 잡수시던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그릇의 밥으로 여러 대중을 배불리고도 밥은 그냥 남았다. 밥을 먹은 이들은 몸이 쾌락하기가 일체락장엄국에 있는 보살들과 같았다.²³⁾

유마경에는 수행자가 행하는 별도의 변공의례가 없이 오로지 유마 거사의 위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화경에 이르면 변공과 관련된 변화의 의미가 확장된다. 법화경을 읽거나 외우거나 (남을 위해) 해설하거나 쓰거나 배끼며 천이백 혀의 공덕을 얻어, 좋거나 추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거나 예쁘지 않거나 쓰거나 뚝은 모든 것이 혀 안에 들어가면 하늘 감로와 같은 최상의 맛으로 변해진다.²⁴⁾

또 『여래신력품에』는 법화경이라는 대승경전을 설하는 석가모니불의 공덕을 찬탄하며 예경과 칭명을 권하며 그 공덕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는 변공 개념 성립의 단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마음 깊이 따라 기뻐할 것이며 또 반드시 석가모니 불을 예배하고 공양할 것이다.” 그 여러 중생들이 허공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듣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칭명하였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불”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 번개와 몸을 장엄하는 여러 기구와 진귀한 보배와 미묘한 물건이 다 같이 멀리서 사바세계에 흩어졌다. 그것은 구름같이 모여 시방에서 오는 것이 보배의 장막으로 변

23) 『維摩詰所說經』(T14) p.552a-c.

24) 『妙法蓮華經』(T9) p.49b.

해저 이곳의 여러 부처님 위에 두루 덮이니 이때 시방세계는 통달해서
걸림 없는 한 부처님 국토와 같았다.²⁵⁾

변화된 대상이 음식만이 아닌 공양구로 확장되어 있지만 불의 공덕과
그리고 칭명으로 위력을 입게 되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화엄경에는 ‘향
으로 공양하고자 널리 모든 부처를 뵈면 소원이 다 채워지는데 일체중
생을 건지겠다는 원이고, 일체 불찰을 깨끗이 장엄하겠다는 원이고 일
체 여래에게 공양하겠다는 원이다’고 하며, ‘이 향으로 공양하고자 하면
하나의 향에서 한량없는 향이 나와 시방일체법계의 여래 도량 바다에
두루 충만해서 종종의 향궁전 향단장 향누각~향변과 향개가 되어 시방
일체법계를 장엄하고 곳곳에 충만해지고 공양이 된다.’²⁶⁾고 하고 있다.

즉, 하나의 향에서 종종의 공양구가 나오는[出生] 것으로 변공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화엄경에는, 여래의 마음에는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이
구축되어 ‘그 광명이 바닷물에 닿으면 모두 우유가 되고 빛나는 대보광명
을 떠나 그 우유에 닿으면 모두 타락[酪]이 되고, 화엄광 대보광명이 타
락에 닿으면 연유가 되고 한량없고 남음 없는 대보광명이 연유에 닿으면
제호가 된다²⁷⁾’고 하거나 ‘한 부처의 몸에서 한량없는 부처가 나온다[於
一佛身上 化爲無量佛]’고 말하고 있다. 예불계의 ‘내 이제 한 몸에서 한량
없는 몸을 내어 다함없는 삼보님께 절한다’거나 현향계의 ‘감로다로 되어’
혹은 연향계의 ‘향구름 일산 되어’ 등은 변공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예참발원의’류

『법화삼매참의』, 『천수안대비심주행법』, 『왕생정토참원의』, 『학보살계
법』 등 많은 참의는 『法華三昧懺儀』의²⁸⁾ 차서 ‘① 嚴淨道場, ② 淨身,

25) 『妙法蓮華經』(T9) p.52a.

26)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一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T10) p.712a.

27) 『大方廣佛華嚴經』(T10) p.271c.

③ 三業供養, ④ 奉請三寶, ⑤ 讚嘆三寶, ⑥ 禮佛, ⑦ 懺悔,²⁹⁾ ⑧ 行道旋遶, ⑨ 誦法華經, ⑩ 思惟一實境界'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참의'들의 공양 편에서 변공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체중생을 자비로 염하고 견지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은근하고 깊은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 간절하고 측은하게 여래 삼보를 생각하되 시방의 허공에 가득하고 도량에 그림자를 나타낸다. 이때 손으로 향로를 잡고 갖가지 명향을 사르며, 갖가지 꽃을 홀어 삼보께 공양한다. 그리고 오체투지 절을 하며 '일체공경 일심경례 시방상주불'이라 소리 나게 말하며 마음은 몸과 입을 따라 일심으로 정례한다. 뜻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략) 3정례를 마치고 호쾌하고 우슬착직하고 몸을 바로 위의를 갖추고 일심으로 "향을 사르고 꽃을 홀어 법답게 공양하고, 이 향화공양이 시방에 두루 하여 불과 경법과 각 보살과 천선들께 공양되고, (공양을) 받으시고 불사를 지으소서." 하며 다음과 같이 마음의 상[運心想]을 한다. '이 향과 꽃이 순식간에 시방일체불토에 두루 이르러 갖가지 여러 보배가 여러 대와 누각을 장엄한다고 관하며, 수승한 여러 빛깔이 갖가지 기악이 되고, 수승한 음성과 범패와 찬탄은 갖가지 전단의 침수가 되고, 수승한 여러 향은 갖가지 음식과 반찬과 탕약이 되고, 수승한 여러 맛은 갖가지 의복과 영락과 흐르는 샘, 목욕 연못이 되고, 수승한 여러 집축은 여러 선정과 지혜, 청정한 실상은 한량없이 되고, 수승한 법문은 모두 법계에 충만해져 불사를 이루게 되어 시방삼세 모든 부처와 일체의 삼보에 공양하오니, 삼보께서는 거두시고 일체중생에게 훈기를 끼어 보리심을 발하게 되고 한 분 한 분 부처님 앞에서 그 몸을 다 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양은 평등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또 육도사생이 모두 나의 공양법계에 들어와 이와 같은 공양은 모두 마음에서 나왔으므로 자성이 없고 마음에 취해 집착할 것이 없으며 이것이 생각으로 이뤘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곧 오체투지를 한다.³⁰⁾

28) 『法華三昧懺儀』(T46) pp.950a-954b.

29) 현재 한국불교 공양의식 때 하는 '예참'은 이 '참의(懺儀)'의 예불과 참회 항목이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공양의식의 예경하는 현공을 '예참'이라고 부르고 있다.

30) 『法華三昧懺儀』(T46) p.950b, "應先慈念一切衆生欲興救度。次當起股重心慚愧懇惻存想如來, 三寶嬰塞十方虛空, 影現道場。是時, 手執香爐燒衆名香, 散種種華供養三寶, 卽尋

위 경전을 자세하게 인용한 것은 ‘변공’ 개념이 예불과 공양, 이후 칭하고 예경하는 의식의 한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현교계통 경전이나 참의의 변공은 부처님의 위력에 의지하거나 향화를 공양하고 그것이 한량 없는 공양으로 변해지는 것을 관상하는 유심(唯心)의 변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변공의례의 수용

이 장에서는 변공의례의 수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변공의례가 성립된 후 국내에 수용된 시기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수록재의를 받아들인 고려 초기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이전의 의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의례를 대상으로 삼는다.

‘2장 변공의례의 형성’에서 보았듯이 변공 개념은 아귀 구제와 무량한 삼보 공양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변공의례는 상중하단에 따라 달리 시설된다.³¹⁾ 하지만 현재는 상중하단의 차이 없이 통합되어 설행되고 있다.³²⁾

五體投地。口自唱言：‘一切恭敬一心敬禮十方常住佛’(心隨身口一心頂禮。無分散意了(中略)禮三寶竟，即當胡跪，右膝著地，正身威儀，一心燒香散華，端身正意，次當口自唱言：‘嚴持香華如法供養，願此香華雲 遍滿十方界，供養佛經法。并菩薩聲聞緣覺衆及一切天仙，受用作佛事’。次當運心想：‘此香華於念念中，遍至十方一切佛土，作種種衆寶莊嚴諸臺樓觀，上妙諸色作種種妓樂，上妙音聲歌唄讚歎，作種種梅檀沈水，上妙諸香作種種肴膳湯藥，上妙衆味作種種衣服瓔珞流泉浴池，上妙諸觸作衆禪定智慧清淨實相無量，上妙法門，悉皆充滿法界，以爲佛事供養十方三世諸佛一切三寶，願三寶攝受，亦熏一切衆生，發菩提心，於一一佛前，悉見己身，如此供養等無有異。又願六道四生，悉入我供養法界海中，了知如是供養，悉從心生無有自性，心不取著，此念成已’。即五體投地，口自唱言。”

31) 본고에서 각위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의례에서 논자는 상중하단에 달리 시설되고 있는 의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 현행 한국불교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통일법요집』(2003)을 보면 상단(131-2), 중단

그런 까닭에 이 장에서는 변공의례를 각위형과 통합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각위형 변공의례는 아귀의 구제와 무량한 삼보에 올리는 공양을 위한 변공이 분리된 의례를 지칭하고, 통합형 의례란 아귀 구제와 삼보 공양에 쓰이는 변공이 하나로 통합된 의례를 지칭한다.

가령 면연다라니경의 변공법에서 보았듯이 아귀의 구제를 위해서는 변식진언을 7편 염송하는 데 비해 삼보에 공양할 때는 21편 염송을 설하고 있다. 또 시감로수진언, 청양성호의 차서가 다양하여 협주 등의 정보만으로 그 역할과 수용자의 인식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교의례를 논하려면 먼저 불교에 어떤 의례들이 설행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³³⁾ 하지만 그것은 본고의 주제를 지나치게 벗어나므로,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와 『석문의범』(1935), 『통일법요집』(2003) 등 한국불교 의례자료집의 수록재, 영산재, 예수재, 제반 불공의 등의 변공의례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불교 의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禪門日誦』, 『供佛利生儀』 등과 현행의 대만의 『수륙재의』와 참조할 것이다.

(210-211), 하단(관음시식, pp.339-340)에는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이 시설되어 있고, 굳이 변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하단용에는 표백문이 없는 것과 상단 중단의 변식진언이 갖은 이름인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묘력 변식진언’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일 뿐이다.

33) 고려시대에 설행된 법회, 도량이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1,038회에 달하고(서윤길(1993) pp.174-175), 조선조에 개설된 의식도 수록재·기우재를 비롯하여 170여 회(서윤길(2006) pp.830-836)에 이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례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 거행한 의례를 포함하며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의례로 의례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 현재 한국불교의례자료로는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의 74종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많은 자료가 조사되고 있고, 본고에서 말하는 의례자료만도 42종이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여러 한계로 말미암아 변공에 대한 특이점이 확인되는 몇 종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각위형

1) 佛供儀 『진언권공』(1496)³⁴⁾

이 의례는 ‘진언권공’이라는 이름 아래 ‘정법계진언, 진공진언,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 보공양진언, 육법공양, 삼정례’의 정연한 공양 차례가 시설되어 있다. ‘진언권공’은 불법승 삼보(상단)에 공양하는 법이므로 중단이나 하단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儀文 부록의 『삼단시식』에서 변공의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삼보 공양을 위한 변공의례를 보자.

진공진언으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을 각 21편(세닐곱번) 읽고 보공양진언을 삼편 읽는다. 이어서 육법공양으로 들어간다. 이어 운심공양계와 진언을 하고 삼정례를 한 후 퇴공진언으로 공양을 마치고 있다. 21편을 읽는 변식진언과 출생공양진언 정식진언을 변공의례로, 이후는 공양의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삼단시식에 보이는 변공의례를 보자. 佛供을 위한 변공으로 변식진언 삼칠편 염송과 ‘운심공양진언’ 7편, ‘운심공양계’³⁵⁾가 시설되었다. 또 제천공양에는 변식진언 21편과 운심공양진언 7편이 제시된다. 상단에 있는 ‘운심공양계’는 제반문 등의 통합형 변공의례에서 볼 수 있는 중단에 맞도록 변형해 사용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변공이나 공양에 앞서 하위에 초청된 이들에게는 청양성호를 통한 심적[內心] 정화, 삼귀오계 수계, 그리고 공양을 받기 위한 신적[外身] 전환의 진언가지를 거치게 된다. 이어서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각 7

34) 『眞言勸供』(HR1) pp.437-497.

35) “원혼돈 이 향공이 법계에 7독혹사 무진혹신 삼보희를 너비 공양호스와지이다 즈비로 공양을 바드샤 선근을 더어 법이 세간에 듀게호야 부텃 은덕을 갑스와지이다.” HR1, pp.480下-481上.

편을 요청하고 있다.

각위에 따라 다른 변공의례를 제시한 『供佛利生儀』³⁶⁾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례는 삼보에 공양하려면, 삼보상 앞에서 오체투지하고 보례진언 7편을 하고 정법계진언 21편, 무량위덕자재광명승묘력변식진언 21편, 출생공양진언 21편으로 가지하라고 하고 있고; 제 바라문선에게 공양하려면, 변식주 이칠편을; 아귀를 구제하려면, 변식주 7편으로 가정한 후 4여래 칭명으로 시식과 시식하는 이들이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이어서 물을 베풀고자 할 때 감로주 7편을 가지하여 공중에 뿌려 아귀에게 먹게 하는 의례가 시설되었다.³⁷⁾

2)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1470; 1573)

우리나라에 수륙제가 설행된 것은 고려 때부터로 알려져 있고,³⁸⁾ 현재 남아 있는 의문은 대체로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 천지명양수륙제의범음산보집, 천지명양수륙잡문, 천지명양수륙제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 천지명양수륙의문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⁹⁾ 이 가운데 이 글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리형 변공의례가 있는 의문을 보기로 한다.

지반문으로 알려진 지반 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에서 분리형

36) 『供佛利生儀』(T46) pp.1004b-1006a는 道殿集, 『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 실린 공양의례로 불교의례를 현밀의례로 수용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요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참의’의 현교 의례와 달라니 송주의 밀교 의례를 통합하여 ‘계’와 ‘주’로 정착되게 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7) 이 의례는 또 지옥을 구제할 때는 파지옥진언 1편으로 지옥을 파하고; 일체 망령을 건지고자 할 때는 불공견삭비로자나불대관정광진언(현 광명진언) 108편을; 일체 유정에게 이익을 주고자 할 때는 성관자재보살감로진언(관세음보살 모다라니와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유사하다) 21편을; 일체 사생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고자 할 때는 대보 광박누각선주비밀다라니를 서사 기동에 붙이라고 하는 등 현재 한국불교에서 염송되거나 시행되는 용례들을 볼 수 있다.

38) 『高麗史』卷第二, 世家第二, 光宗 戊辰 十九年

39)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2010) pp.89-104.

변공의례를 만날 수 있다. 고려 스님 죽암 찬 활요나 찬요와 달리 이 의례에는 편목이 없다. 자리에 앉으신 삼보께 인사를 올리고 난 뒤 헌공을 위한 변공에 들어간다.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소향진언을 변공의례로 볼 수 있고, 이후의 헌화진언, 도향진언, 헌공진언, 음악진언, 헌과진언, 헌병진언과 권공계 보공양진언은 공양의례로 볼 수 있다.⁴⁰⁾

이어 중단의 제 천선의 안좌가 끝나면 법사와 시주는 차례대로 다탕을 올리고 향을 올린다. 이어서 변식진언을 14편 하고, 감로수진언 수륜주 유해진언은 7편 외운다. 법사는 공양계를 외우고 보공양진언으로 공양하고 이어서 바로 대승경전을 외우고 난 뒤 회향 발원계를 창하고 있다.⁴¹⁾

하단의 변공의례를 ‘주식현공’이라고 하여 공양에 공능이 나타나기를 빈다고 하며, 변식, 감로수 수륜관 유해진언의 표백과 진언 7편을 설정하고 있다. 하단에 있는 이들에게 대중의 진언 염송에 의지하면 ‘제불자(영가)’의 정업이 이미 없어지고 원결이 풀리므로 이제 그대들을 위해 변공다라니로 가지한다고 일러준다. 보공양진언으로 재보시를 마치면 바로 ‘설시인연’편을 시설하여 범보시로 전환되고 있다.⁴²⁾

지반문 변공의례의 특징으로는 수륜관진언과 유해진언은 상단에 시설되지 않았다는 점, 중단에 변식진언은 14편을 하지만 감로수 수륜주 유해진언은 하단과 같이 7편을 염송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3) 광략에 따른 『작법귀감』

위에서 살펴본 두 유형은 공양을 받는 이들에 따라 다른 변공의례가 시설되었지만 이 의례는 광략(시간의 다소 여부)에 따라서도 변공의례가 다르게 설정되었다. 공양을 올릴 분을 모시고 난 다음 공양계와 祈

4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HR1) pp.592하-593하.

41)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HR1) pp.600하-601상.

4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HR1) pp.611상-612상.

聖加持의 변공의례를 시행한다. 기성가지(혹 가지변공이라고 한다)를 보자. 현재와 같은 ‘향수라열 재자건성~양유삼보 특사가지’의 가치를 칭하는 표백을 하고,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을 21편하고 가지공양편,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 공양 받는 분을 거명한다. 이후 공양하는 삼정례의 가지 공양과 보공양진언의 보회향진언, 능엄주 원성취주 보결주 축원의 순서가 제시되고 있다. 즉 가치를 칭하는 표백부터 육법공양 앞의 가지공양까지를 변공의례라 할 수 있다. 이 의례를 ‘廣則’이라고 하여 시간이 많을 때 행한다고 하고, 간략하게 할 때는, 공양계 이후에 바로 운심계와 呪로 가지하고 진공진언과 변식진언 정식진언 21편을 염송하여 변공한 후 보공양진언의 공양으로 넘어가고 있다.⁴³⁾

이 간략한 가지의 차서 상 ‘운심계·주’ 다음에 진공진언과 변식진언 정식진언이 시설된 것은 앞의 진언권공과 비교하면 변공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게 차이를 보여 준다. 현재의 ‘진언권공’을 이 작법에서는 ‘기성가지’라고 하거나 ‘수륙제의’에서 칭하는 ‘가지변공’이나 ‘진언변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탁월한 데 비해 이 ‘간략한 변공의례’는 수공이 잘 되지 않는다. 만일 운심계와 주를 하고 보공양진언을 시설하였다면 그 값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나 가지공양과 육법공양이 생략된 간략한 변공의례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보인다.

신중단, 칠성단의 변공의례로는 공양계와 운심계·주를 시설하면서 상단의 ‘진언변공’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⁴⁴⁾ 이어서 공양주 회향주 심경 소재주 성취주 보결주의 차례가 보이는데 이는 현행 한국불교 신중단 예경의 심경 독송에 대한 단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단에 대령할 때는, 제수[奠]가 없을 때는 헌좌 후 다게로 삼배를 하

43) 『作法龜鑑』(HR3) pp.378상-379하.

44) 『作法龜鑑』(HR3) pp.382하-383상.

고 공양주로 봉행하고, 奠이 있을 때는 ‘향설오분지진향 훈발자성’ 등 香·燈·茶·果·食의 5공양을 한 후 심경을 송하고 시식계로 나아가고 있다.⁴⁵⁾ 상용시식의 경우는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각 7편을 제시하면서 관상과 행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⁴⁶⁾

2. 통합형

1)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1607)⁴⁷⁾

‘중례문’이라고 표제가 달린 이 의궤에는 상중하의 구분 없는 변공 진언이 시설되었다. 이 글에서 분석한 영인본은 편철 순서가 매우 불량하지만 상중하단에 시설된 변공의궤를 찾는 데는 무리가 없다. ‘上位進供’은 ‘기성가지’문이 현재의 ‘향수라열 재자건성~양유삼보 특사가지’가 조금 다르다. 현재의 가지문보다 선행되었다고 보인다. 이어서 ‘대위덕진언왈, 감로수진언왈, 수륜관진언왈’ 하며 각呪를 7편 염송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기성가지와 변공 진언들에 ‘진언권공’이라는 소재목이 없이 ‘기성가지편’이라는 편목을 달고 있으며, ‘보신배헌편’으로 표백과 3정례 공양을 한 후 보공양진언을 진행하고 있다. ‘중위진공’의 ‘기성가지’는 가지를 청하는 아뢰는 글이 없고 ‘나무시방불·법·승’으로 가지를 청하고,

45) 『作法龜鑑』(HR3) p.387상. 5공양의 ‘과공양’이 보이지 않는데 제작 상 오류인 듯하다.

46) 『作法龜鑑』(HR3) pp.388하-389상.

47) 『중례문』이라고 불리는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는 『수륙제현황조사보고서』(2010) pp.95-96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62종의 판본이 알려져 있다. 본고의 저본은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 소장본으로,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소재 신홍사판(1661)과는 동일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며, 신홍사판보다 선행하여 저본으로 삼았다. 이 의문은, 간기에 따르면 萬曆 35년 丁未(1607년) 3월에 충청도 공주 감사에서 개관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수륙제현황보고서』 p.94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최근에 학계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2007) ‘해제’ p.16에는 간행년도를 1547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라고 보인다.

‘대위덕진언왈, 감로수진언왈, 수륜관진언왈’ 하면서 별도의 염송 편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신배헌편과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으로 성인 공양을 회향하는데 창화계와 반야심경을 회향계와 회향문 전에 얹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법공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위시곡’이라고 하여 하단에 모시는 이에게는 ‘進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칭양성호 등 가지를 행하고 죄업을 소멸하고 난 뒤에 ‘주식현공’이라는 변공의례가 등장한다. 변공 4다라니를 설하는 것은 상단(위)·중단(위)과 같지만 ‘진언왈’ 하고 있는데 다라니로 인해 공양이 한량없어지고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운택해지고 업의 불길이 시원해진다고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점이 다르다.

2) 하위를 상위로: 『영산대회작법절차』⁴⁸⁾

영산재의 시원도 명확하지 않고 차서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련 재대령 관육 조건점안 신중작법 쾌불이운 영산작법 식당작법 중단권공 관음시식 봉송의식’의 차례나⁴⁹⁾ 내용을 보면 특이점이 발견된다. 가령 ‘대회소’에서 ‘이 수록회’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고,⁵⁰⁾ 이전의 『영산대회작법절차』⁵¹⁾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가령 영산 6거불의 순서, 다계와 정대계의 내용이 다르다.⁵²⁾ 『영산대회작법절차』의 변공의례를 보자. 가지청문 ‘香羞羅列 辦供施主 與 緣化比丘 某等 虔誠 ~’은 齋者의 자리에 ‘관공시주 여연화비구 모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재와 같이 진행한다. 변식진언 21편, 시감로수진언 7편, 일자수륜

48) 『靈山大會作法節次』(HR) pp.129-137하.

49) 심상현(2003) pp.136-351.

50) ‘水陸’이라는 표현이 5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영산회의 실행 목적이 수록 일체 고향을 천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심상현(2003) pp.238-239.

51) 『靈山大會作法節次』(HR, 1634) pp.129-137하. 1613년 『靈山大會作法節次』본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고는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소재 의문을 저본으로 삼았다.

52) 이 점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관진언 7편, 유해진언 7편으로 변식하고 가지공양을 창하고 이후에 6법 공양을 하고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을 염송하는 차제를 보이고 있다. 이 의례는 『금산사 제반문』(1694)에 실린 『영산대회작법절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가지 청문 ‘재자’의 자리에 ‘모 시주’라고 하고 있고 변식 감로 수륜 유해 등 ‘4다라니’라고 하면서 별도의 진언을 명기하지 않고 협주하고 있으며, 또 염송편수 ‘각각 21편’이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영산제』(2003)에는 ‘권공의식’이라는 큰 제목 아래 ①정법계진언 삼칠편, ‘향수나열 재자건성~특사가지 나무상주시방불~승’을 ‘②진언권공’이라고 하고,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을 ‘③사다라니’로 나누고 삼칠편 염송을 시설하고 있다.⁵³⁾ 이는 그동안 정법계진언, 변공의례, 공양의례를 포함한 ‘진언권공’이라는 명칭을 ‘권공의식’의 하위 명칭으로 격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하단의 통합

『대각교의식』(1927)은 『진언권공』(1496) 이후 우리 글로 편찬된 의식으로 통합형 변공의례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 제2장 ‘聖供節次’를 보면 가지청문을 ‘시방의~승보님이시여, 우리들이 지극한 맘으로 받들어 청하오니, 큰 자비로 도량에 강립하사 이 청정한 묘공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여 진언으로 공양물에 가지를 청하겠다는 의미를 소청 권공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은 각 7편, 출생공양진언은 1편, 정식진언, 운심공양진언 3편 후 9정례 공양을 한 다음 보공양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을 한 후 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⁵⁴⁾ 각위형의 하단에 주로 쓰인 사다라니와 상

53) 이 책은 집필자나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중요 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제의 범패 설행 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촌 봉원사 의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단에 주로 쓰이고 있는 출생공양진언과 정식진언 운심공양진언이 상단 변공의례로 통합되었지만, 하단 시식에는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을 각 7편⁵⁴⁾ 염송하라고 하고 있다. 또 상단에서는 변식진언을 ‘무량위덕자재광명승묘력변식진언’이라는 갖은 이름으로 칭하고 있지만 하단의 경우는 ‘변식진언’으로 축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석문의범』(1935)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진언권공’이라는 제목 아래 상단에 주로 쓰였던 출생공양진언과 정식진언을 보공양진언 이후에 시설하고 있다.⁵⁶⁾ 그 의도를 잘 알 수 없다. 이후 이 책의 신편증주라고 하고 있는 『신편증주 석문의범』(1982)은 주석자가 달라지면서 출생공양진언과 정식진언을 유해진언과 운심공양진언의 사이에 편재하고 있다.⁵⁷⁾ 석문의범도 대각교의식과 마찬가지로 하단에는 출생공양진언과 정식진언은 시설하지 않고 있다.

IV. 변공의례의 변형과 특성

『진언권공』(1496)은 상중하단의 차이뿐만 아니라 상단의 변공도 상단권공(진언권공이 곧 상단권공이라 할 수 있다)과 삼단시식에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상단권공의 상단과 삼단시식의 상단공양은 당해 법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시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륙제의문은 지반 찬 의문과 죽암 찬 의문이 다르다. 위와 단에 따

54) 『대각교의식』(HR4) pp.39하-40하.

55) HR4 pp.46하-47상.

56) 安震湖(1935; 2000) pp.5-6.

57) 한정섭(1982) pp.255-256.

라 다르게 변공의례가 시설된 지반 찬 의문에 비해 죽암 찬 의문들은 통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시공간의 거리에 따라 멀어지게 된 데 연유하지 않을까 한다.

영산재의 변공의례는 영산재의 성격만큼이나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전쟁 등 불의에 떠난 일체의 영가에 대한 구제와 시식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수록재와 달리, 영산재는 영산의 교주 석가모니불을 초청해 법화경을 설하여 그 공덕으로 先王先後를 왕생극락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에 하위의 仙駕(조선시대 때는 선왕 선후의 영가를 선가로 칭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상단의 입장에서 변공이 시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작법귀감』(1826)은 제반집과 요집을 정리한 의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간행된 의례서로는 비교적 협주가 많아 의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황에 따라 廣·略의 변공의례와 상중하단에 따른 변공의례를 세분화하면서 ‘진언권공’을 ‘가지변공’이라 편목을 하는 등 변공과 권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하단의 변공에 쓰이는 ‘사다라니’에는 별도의 제목을 달지 않고 있다.

근대에 편찬된 『대각교의식』이나 『석문의범』은 상단용과 하단용이 통합된 채 수용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다라니’와 ‘진언권공’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영산재』에서는 ‘사다라니’의 가지청의 표백을 ‘진언권공’이라고 하고 ‘사다라니’ 앞의 ‘정법계진언’과 ‘사다라니’ 이후의 권공의식을 ‘권공의식’이라는 상위의 제목으로 인식하여 ‘권공’과 ‘변공’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V. 結語: 여럿이 하나로

변공의례는 구제와 성불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과 바라밀의 실천으로 형성되고 성립되었다. 변공 개념과 의례 성립의 단초를 보여주는 밀교계 경전에는 적지 않은 변공용 진언다라니가 등장한다. 『불설구면연아귀다라니신주경』에는 ‘일체덕광무량위력’ 7편으로 변공이 끝났지만(삼보의 경우는 21편으로 편수만 늘어남),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에서는 ‘無量威德自在光明殊勝妙力’ 다라니와 4여래 명호의 칭념이 추가된다.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계의경』에는 ‘시감로수진언’을 외위 일체의 귀신들의 업화를 청량하게 하고, 목구멍을 열고, 7여래 명호를 칭양하여 모든 불자들의 외적 내적 변화와 공덕을 충족하게 한다. 이후 삼귀계를 주어 보리심을 발하고 삼매야계를 받게 한 다음 변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多佛 개념의 생성으로 수많은 불법승 삼보가 탄생하게 되면서, 이 분들에 대한 공양을 위한 변공 개념이 요청되어 運心 관상으로 일체처에 편재한 분들에게 공양을 관하는 변공법이 발생하였다. 가지청문, 운심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교의 계승과 밀교의 진언이 합해진 이 변공의례는 수록재·영산재·상단공양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변모되었다. 각위형과 통합형의 변공의례를 보면 그 쓰임이 차이가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다. ‘진언권공’이라는 말은, ‘진언으로 공양을 변공하여 진언으로 (상단에 공양을) 관하는 의미’로 제목과 차서가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제반문 등에 편입되어 활용되면서 일부 진언이 탈락해 가면서 축약되었다. 상·중·하단에 동시에 쓰인 ‘변식진언’을 중심으로 출생공양진언이나 정식진언 등 상단용 진언권공은 사라지고, 하단에 전용으로 쓰였던 감로수진언·수

륜관진언·유해진언이 사다라니로 통합되어 상중하단에 구별되지 않은 채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의례는 논리나 교학을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성의 산실이며 의례를 종학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단 권공에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업화청량을 감로수진언이나 시식의 역할을 하였던 유해진언이 편재된 현재의 한국불교 공양의식의 ‘진언권공’의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T : 대정신수대장경

HR :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妙法蓮華經』鳩摩羅什 譯(T9)

『維摩詰所說經』鳩摩羅什 譯(T14)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一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般若 譯(T10)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不空 譯(T21)

『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不空 譯(T21)

『佛說甘露經陀羅尼呪』(T21)

『大方廣佛華嚴經』實叉難陀 譯(T10)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實叉難陀 譯(T21)

『佛說施餓鬼甘露味大陀羅尼經』跋駄木阿 譯(T21)

『遊行經』佛陀耶舍 共 竺佛念 譯(T1)

『法華三昧懺儀』遵式述, 智顓輒采(T46)

『供佛利生儀』道殿 集(T46)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志磐 撰(HR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竹庵 編(HR2)

『遊行經』佛陀耶舍 共 竺佛念 譯(T1)

『增修禪教施食儀文』德異修 註(HR1)

『眞言勸供』學祖 譯(HR1)

『作法龜鑑』巨璇 撰(HR3)

『대각교의식』백상규(HR4)

대한불교 조계종(2003), 『통일범요집』, 서울,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2010), 『수륙제 실태 조사 보고서』, 서

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박세민(1993),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서울, 삼성암.

서윤길,

1993_ 『고려밀교사상사연구』, 서울, 불광출판부.

2006_ 『한국밀교사상사』, 서울, 운주사.

심상현(2003), 『영산재』,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安震湖(1935; 2000), 『釋門儀範』, 서울,法輪社.

월운(1991), 『일용의식수문기』, 서울, 열린불교.

정각(2002), 「불교 제례의 의미와 행법」, 『한국불교학』 제31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한정섭(1982), 『신편증주 석문의범』, 서울, 법륜사.

[Abstract]

Consideration on a offering ceremony in
Korean Buddhism
-Formation and properties of Byeongonguigwe-

Lee, Sung-Woon

There are memorial ceremonies of Buddhism such as kongyang for the three treasures who are Buddha, the law of Buddha and a Buddhist monk, a law offering like Sisig for a hungry ghost or Banseung for themasters of a Buddhist priest for the present three treasures. This paper was addressed the formation of Byeongonguigwe as an example that a ceremony is to change a finite gongyangmul into an infinite gongyangmul(供養物) depending on weird power when one is conducting the law offering to the infinite one offered with a finite gongyangmul during this memorial ceremony and how the Byeongonguigwe was accepted to a memorial ceremony in Korean Buddhism, as well as how people can recognize it in present.

This Byeongonguigwe that can change just one bowl of gongyangmul into unlimited gongyangmul may bethe place where is the most mysterious among a Buddhist ritual harmonized Zoroastrianism with Esoteric Buddhism, on the other hand, may be the part of the most non-buddhist (or formerly or superstitious). However, this Byeongongi-gwe that reachesto any invisibleangler, to say nothing of visible

thing shows well the one-sided in the mercy thoughts of Buddhism.

This article was reviewed first how the law of Byeongong has been formalized in the scriptures of the Exoteric Buddhism line and the Esoteric Buddhism line(Chapter 2), then analyzed how the law of Byeongong has been accepted by an example of a memorial ceremony in Korean Buddhism separating into a single-type and an integrated type(Chapter 3), finally, developed to focus on an example - '4dhāranī(Jinengwongong)' fixed by changing to a memorial ceremony in present Korean Buddhism. From this paper, to review how Byeongonguigwe has been accepted by Korean Buddhism, how a disciplinant could be recognized in Korean Buddhism, also in present how they recognize will be contributed not only to understand correctly Byeongonguigwe but also an outlook on the world of Buddhism(法界觀, Beopgyegwan).

Key words: kongyang(供養; offerings to Buddha or his order), Sisig (施食; a ceremony lead to the sky for Spirits of the Dead), Byeongonguigwe(變供儀軌; ritual texts for change meal), Jineongwongong(眞言勸供), 4dhāranī, Exoteric Buddhism, Esoteric Buddhism]

접 수 일: 2010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 2010년 8월 3일-9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16일